



# 生活醫學



## 치질이야기 1

글. 윤진석  
잠실 한술병원/대장항문외과 과장

오늘은 한국인에게 가장 많은 질병 중 하나인 치질에 대해 얘기해보겠다.

흔히 많은 분들이 항문 통증이나 피가 나면 치질이라고 생각하고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정확한 의미의 치질은 치핵, 치열, 치루, 항문소양증, 항문 콘딜로마(사마귀의 일종) 등의 항문에 생기는 양성 질환을 통칭하는 말이다.

그 중 가장 흔한 질환이 치핵인데 일반적으로 전체 치질환자의 약 70%가 치핵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흔히 치핵과 치질을 혼동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럼 치핵이란 무엇인가?

실제 치핵이란 직립 보행을 하고 앉아서 뒷일을 보는 인간에게만 있는 질환이자 정상적인 조직이다. 즉 배변 시 항문 주위의 괄약근을 보호하고 평상시 변이 새어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항문의 점막하층에 잘 발달된 혈관층이 있는데 이것이 치핵층이다. 이 치핵층은 내치핵층과 외치핵층이 있고 서로 유기적인 작용으로 항문을 보호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치핵층을 지지해주는 조직이 느슨해지고 평소 배변시 장시간 과도한 힘을 주는 경우가 오랜 기간 지속되면 치핵층이 항문 밖으로 탈출되거나 부어 올라 여러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불편감을 주게 된다.

때때로 한 가족 중에 치핵이 여러명 동반된 경우를 보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유전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가족들이 유사한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는 간경변 등으로 간 기능이 안좋은 경우에도 간을 통한 원활한 혈액의 흐름이 방해받아 항문주위에 치핵이 생기기도 한다. 이런 치핵이 생기게 되면 다양한 증상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도 내치핵(암치질)과 외치핵(숫치질)에 따라 다르다.

내치핵은 증상이 있는 경우 이미 오랜 기간 치핵이 진행된 경우이지만 외치핵의 경우는 생기는 즉시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내치핵의 가장 흔한 증상은 출혈이다. 항문으로 선홍색 출혈이 배변 시 비치고 경우에 따라선 물총 쏘듯이 피가 뺨는 경우도 있다. 증상을 방치한 채 시간이 경과하면 빈혈이 생기게되는데 젊은 사람에게 가장 흔한 빈혈의 원인 중 하나가 치핵의 출혈이다.

또 다른 많은 증상은 배변 시나 힘든 일을 할 때 치핵이 밖으로 탈출하여 불편감을 주는 것이다. 증상이 심해지면 탈출 된 치핵이 잘 들어가지 않게 되고 심한 통증을 일으키게 되며 잘못하면 항문이 썩어들어 가는 경우도 있다.

이밖에 잔변감,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 가려움, 통증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중년 이상의 환자들은 대장 직장암의 동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잘싸야 건강하다

외치핵의 경우는 내치핵과 달리 피곤하거나 음주 후에 갑자기 발생한 통증과 항문 주위의 작고 단단한 덩어리가 주 증상이 된다.

치핵의 치료는 약물과 좌욕 또는 주사제(부식제 주사와는 다름), 결찰술 등의 보존적 비수술적 요법과 수술적 요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흔히 소량의 출혈만 있거나 배변 시 탈출되는 치핵이 작고 쉽게 다시 항문으로 복원되는 경우, 또는 작은 덩어리가 생긴 외치핵의 경우는 보존적 요법으로 잘 치료가 되지만 출혈이 심한 경우, 탈출되는 치핵이 크거나 잘 복원이 안되는 경우 크기가 큰 외치핵의 경우는 수술적 치료가 최선이다.

과거에(요사이도 이런 분들이 있던데) 무자격자에게 부식제 주사를 맞고 후유증으로 병원에 오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 이들이 쓰는 주사는 조직을 괴사시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으로 1900년대 초기에 치핵 치료로 쓰였다가 심한 부작용과 재발로 의학적으로 사장된 방법이다.

이렇게 부식제 주사를 맞는 경우엔 항문 속의 근본적인 치핵충은 그냥 두고 밖의 볼거진 부분만을 괴사시키므로 후에 항문이 좁아지거나 섬유화 되어 치질의 재발은 물론 복구가 불가능한 협착이 생기기도 하므로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치료이다.

또한 한때 레이저 치핵수술이라는 것이 각광을 받은 때가 있었다. 하지만 레이저 기술은 고비용에 비해 기존수술에 비해 장점이 거의 없어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많은 대장항문 전문 병원이 생기고 여러 기술의 발달과 약물의 개발로 과거에 비해 통증이나 재발을 월등히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오늘은 본원에서 환자들에게 당부하는 좌욕과 항문 건강을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는 것으로 끝나치고 다음 호에서 치루, 치열 등의 나머지 치질 질환에 대해 소개하겠다.

## 항문 건강을 위한 일반적 방법

- ◆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섬유소(아채, 과일)를 섭취한다.
- ◆ 과음은 대장점막 자극 및 식이균형 파괴로 설사 및 변비를 일으키므로 피한다.
- ◆ 배변시간은 가능한 짧게 갖도록 한다.
- ◆ 가능한 1일 1회 좌욕을 한다.
- ◆ 2주일 이상 지속되는 변비, 혈변, 항문통이 있을 때는 반드시 대장항문 전문의와 상담하도록 한다.

## 항문 건강을 위한 좌욕 방법

- ◆ 목욕물 정도(30~35°C)의 따뜻한 물에 항문을 담근다. (소금, 약물 등은 첨가하지 않는다.)
- ◆ 시간은 길수록 좋으나 통상 1회 5~10분 정도 시행한다.
- ◆ 횟수는 1일 2회 이상이 좋으며 배변 직후와 잠자리 들기 전에 실시한다.
- ◆ 좌욕 후 부드러운 타올로 항문 주위를 건조시키며, 가려움증이 있는 경우는 드라이어로 시원한 바람을 일으켜 습기를 완전히 말린다.